

# “고흥우주선 철도건설 필요성”...국회서 한 목소리

### 타당성 분석...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목표 우주항공산업 획기적 발전·지역 균형발전 전환점 기대

고흥군이 '고흥우주선 철도건설' 국회 토론회를 통해 철도 구축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피력했다.

23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문금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고흥군,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주관한 '고흥우주선 철도건설 사전 타당성 조사 및 발전전략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고흥우주선 철도건설의 필요성과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철도노선의 경제성·타당성을 분석하며 고흥군 철도건설에 대해 전문가들의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임광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고흥우주선 철도건설의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고흥 철도건설은 가능성이 있다"며 "고흥우주선 철도가 건설되고 단계적으로 확장되면 고흥-서울 간 이동 시간이 현재 약 5시간에서 2시간30분대로 줄어들며 수도권, 부산·울산권 및 광주권역과의 고속 교통 접근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고흥우주선 철도를 기반으로 고흥군의 국가 미래 핵심 전략산업인 우주·드론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한국철도학회 사공명 회장을 좌장으로 송광민 전남도 도로정책과장, 송권 국가철도공단 사업기획처장,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정책연구실장,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 김승일 고흥철도추진위원장, 송원종 고흥군 건설과장이 함께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고흥군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경전선 목포-별교-부전역(부산) 구간 중 별교역에서 고흥으로 연결하는 노선을 검토하고, 지역 여건을 수렴해 전남도와 함께 고흥우주선 철도사업 타당성 향상 방안을 마련,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4월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가 열리면 고흥우주선 철도건설의 필요성을 강력 표명할 방침이다.



지난 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고흥우주선 철도건설 사전 타당성 조사 및 발전전략 국회 토론회'의 참석자들이 철도 구축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피력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문금주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항공우주산업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고흥을 비롯한

고속교통 소외지역인 남부권에 반드시 고속교통체계가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영민 군수는 "토론회가 고흥의 고속 철도망 구축으로 대한민국 미래 발전을 위한 우주항공산업의 획기적 발전

과 지역의 균형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고흥우주선 철도건설 사업이 2025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 되도록 모든 이들의 강력한 지지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 여수시, 청년정책 신규사업 발굴 '총력'

###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등 내년 9개 사업 추가

여수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6개 청년정책 사업 추진 상황을 원점에서 점검하고 청년 정착 선순환을 위한 내년도 신규 사업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정기명 여수시장 주재로 부시장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여수시 청년정책 사업 추진 상황 점검 및 신규 시책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서는 각 부서의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여수형 뉴딜일자리 청년인턴 직무캡처 추진', '여수형 청년 임대주택 확대' 등 지역 맞춤형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올해 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은 총 6개 사업으로, 사업비 484억원을 투입했다. 특히 올해는 '청년위원회'를

▲관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지원 등 9개 사업을 추가할 방침이다. 정기명 시장은 "청년 유출 문제는 일자리, 주거, 교육, 의료 등 생활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모든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여수만의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플랫폼 청년포털 구축 ▲청년 진입지원에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정기명 여수시장 주재로 부시장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여수시 청년정책 사업 추진 상황 점검 및 신규 시책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사진>

## 담양 담빛수영장, 매출·회원 만족도 올라

### 건설링·종합강습반 운영 등 환경 개선 효과

담양군은 "최근 군에서 운영하는 담빛수영장이 관련 컨설팅협회의 자문과 강습 프로그램 운영 등 환경 개선으로 이용 회원의 만족도와 매출이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담양군은 올해 3월부터 담빛수영장 활성화를 위해 수영장 관련 한국스포츠킷컨설팅협회의 자문과 협회 소속 전문체육인(센터장)의 지원을 받아 종합강습반을 도입, 매 시간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운영시간 연장과 이용객 대상 수상 안전요원 자격취득 교육, 직원 교육, 실시간 수질관리 등 다방면으로 수영장 운영을 개선하고 있다.

담양군 공공시설사업소에 따르면 이

러한 운영개선 결과, 지난 3월부터 8월 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이 37% 증가했으며 이용 회원도 28% 늘었다. 아울러 이용 회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투표를 통한 월별 우수 직원을 뽑는 등 친절도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담빛수영장은 앞으로도 회원들의 만족도 상승과 함께 매출 상승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에너지 절감, 효율적 인력관리,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담빛수영장 활성화를 위해 불편함이 없도록 체육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담빛수영장과 헬스장에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강정일 의장은 "환율 변동성 확대, 미국 경기 둔화 등 각종 경제 이슈들로 어려움이 있지만 모두가 합심해 연초에 계획한 사업과 투자유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신양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직무대리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주요 현안 해결과 투자유치 목표 달성에 매진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



초급반 기초반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서 2024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심의·의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는 23일 "지난 20일 청사에서 제14회 조합회의의 심의를 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추진 사무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뤄진다.

강정일 의장은 "환율 변동성 확대, 미국 경기 둔화 등 각종 경제 이슈들로 어려움이 있지만 모두가 합심해 연초에 계획한 사업과 투자유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신양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직무대리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주요 현안 해결과 투자유치 목표 달성에 매진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

## 화순군, 폐기 수목 재활용 사업 '호응'

### 폐기 수목 나무은행에 보관...마을숲 조성 등 공익사업 활용

화순군은 23일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버려지고 폐기되는 수목을 공익적 사업에 재활용해 아름다운 녹지공간 조성에 쓸 수 있도록 나무은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무은행 사업은 군 내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버려질 수목과 개인이 기증하는 수목 중 가치 있는 대형목 및 희귀목 등을 군에서 관리하는 나무은행에 옮겨 심었다가 공익, 마을숲 조성 등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화순군은 2011년부터 화순읍 감도리 군유지 일원 등 2개소, 1만1천250㎡에 배롱나무 등 18종, 870여주를 이식해 관

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화순읍 현대요양병원 삼거리 주변에 원형교차로를 조성한다. 폐기될 위기를 겪은 소나무(87주)를 동·면 광업소 주변 폐탄장 미세먼지



화순군 화순읍 감도리 군유지 일원 등 2개소, 1만1천250㎡에 배롱나무 등 18종, 870여주를 이식해 관

차단숲(26주)과 도암면 운주사 실외정원 조성 사업(11주) 등에 재활용해 사업예산 절감 및 수목의 가치를 제고하고 녹지공간 조성에 기여한 바 있다.

김두환 산림과장은 "앞으로도 개발 등으로 인해 폐기 처리하는 수목 중 가치가 있는 수목은 가능한 폐기하지 않고 옮겨심기 해 군민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에 힘쓰고자 한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 곡성군, 숨은 유기농 명인 찾는다

### 30일까지 신청...선발 시 명인 상표 등 혜택

곡성군은 23일 "오는 30일까지 전남 유기농 명인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유기농업 분야에서 전통농법과 현대과학을 접목한 저비용 유기농 선도기술 체계화에 앞장선 농업인을 선발, 우대·지원하기 위해 진행한다.

모집 분야는 벼, 밭작물, 과수, 채소, 축산, 기타 등 총 6개 분야다. 지원 자격은 재배면적 3천300㎡ 이상의 유기 인

증을 받고 5년 이상 유기농업을 실천한 농업인이다.

신청 방법은 오는 30일까지 신청 서류를 구비해 농정과 또는 소재지 읍·면 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선발 과정은 서면 평가와 현지실사를 거쳐 유기농업 경력과 독창적 농업 개발 등을 종합평가한 후 전남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기농 명인으로 선정되면 홍보 안

내판 제공, 전남도 유기농 명인 상표 '명인드림' 사용권, 유기농 명인 지원 사업 등 유기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유기농 명인 선별을 통해 우수한 유기농업 기술을 발굴·확산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달라"고 말했다.

한편, 2011년에 선발된 유기농 명인들은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 미생물 등 천연자원을 사용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한 영농교육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어 유기농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곡성=김명필 기자

## “벼멸구 막아라” 보성군, 약제비 5억5천만원 투입

### 7천953ha·6천여 농가 혜택...최대 36만원 지원

보성군이 이상고온 지속으로 벼멸구 피해 급증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 5억5천만원을 긴급 투입, 전 농가 방제 약제 지원에 나섰다.

23일 보성군에 따르면 현재 약 1천988ha의 벼 재배지에 벼멸구가 발생했으며, 집중 고사한 부분은 약 480ha에 이른다. 이러한 피해는 벼 수확량 감소·품질 저하로 이어져 농민들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예비비는 방제 약제비 지원으로 쓰일 예정이며, 관내 약 6천여 농가 7천953ha의(일반 7천670ha·친환경 283

ha) 면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액은 벼 재배면적 3천㎡(900평) 이하 기본 4만원, 초과 3천㎡당(900평) 2만원씩 추가되며, 농가당 5ha까지(최소 4만원부터 최대 36만원까지) 1회에 한한다.

지원 대상은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1천㎡(300평) 이상 벼를 재배하는 농가 중 긴급방제 농약대를 신청한 농가다. 신청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산업팀에서 하면 되며, 신청한 자에게는 읍·면을 통해 약제비가 개별 지급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벼멸구는 방제 시기를 놓칠 시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농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비비 긴급 투입을 결정했다"며 "벼 재배 농가에서는 벼멸구 확산 방지와 조속한 방제를 위해 반드시 긴급 약제비 신청을 당부하고, 즉시 농약 살포, 수시 방제 등의 신속한 조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벼멸구가 발생한 논에 대해서는 방제 효과가 높은 벼멸구 전용 약제를 벗대 아래까지 충분히 뿌릴 수 있도록 안내하고 농약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약 안전 사용기한 준수 방제 지도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벼멸구는 방제 시기를 놓칠 시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농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비비 긴급 투입을 결정했다"며 "벼 재배 농가에서는 벼멸구 확산 방지와 조속한 방제를 위해 반드시 긴급 약제비 신청을 당부하고, 즉시 농약 살포, 수시 방제 등의 신속한 조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